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스럽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A]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를저를 글 읽으셨다

[B]

[C]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홀 새벽 달빛을 밝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육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D]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E]

\*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뚫는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1~3]

✓ 읽기 전 활동

(가)와 관련된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만을 보고 내용을 대강 예측해보아야 합니다. 제목이 출생기네요. 생명이 출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봅니다.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 융희(隆熙) 2년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대상 파악하기

②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는 지금 융희 2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고을에서 떠나지 않고, 부엉이가 괴괴히 울고 있네요. 마을의 분위기가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어두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깔려 있네요.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릉저릉 글 읽으셨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마을이 어두운 분위기지만,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해 지붕에는 박년출이 자라고 석류꽃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자연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화자를 잉태한 어머니도 등장하네요. 이 또한 생명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밝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화자가 자신이 태어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왕고모의 제삿날 밤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다

고 합니다. 번문욕례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예절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것의 후예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대 현실 상황이 번문욕례하고 사대주의적인 상황이었고, 화자는 그 상황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라면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고고 :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할머니는 화자의 이름을 돌메라고 지어 주었네요. 그 이유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명이나 길라 하여 돌메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처음 우는 울음소리가 사람이 죽어 우는 소리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는 울음이 사람이 죽어 우는 울음과 연관되어 있으면 아이와 죽음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화자 자신의 출생에 대해 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에 시적 상황 파악에 집중하셨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 <보 기> —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읽기 전 활동

(나)는 관련 <보기>가 등장하네요.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해 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고,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봄을 맞이한 생동감, 고향 마을의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뚫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사갈의 마을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봄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정맥이 새로 돋고 있네요. 이는 <보기>에서 말한 봄의 생동감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정맥이 새로 돋고 있는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삼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의 쥐뿔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눈이 오면 겨울 열매들은 올리브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 또한 봄의 생동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낙들은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핍니다.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네요.

#작품 총평

삼월의 봄의 생동감을 잘 나타낸 작품이에요.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를 보았다면 더더욱 읽기 쉬운 작품이에요.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가)는 ‘융희 2년’이라는 시간 표지를 제시하고 이 시간의 어두운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삼월’이란 표지를 제시하고 봄의 생동감을 묘사하고 있어요.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가)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 화자의 출생에 대한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가)와 (나) 둘 다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가)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 ‘부엉이’ 등 암울한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해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봄의 생동감을 묘사하고 밝은 분위기입니다.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 (가)는 전혀 이국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사갈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① [A]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라며 청각적 심상인 까마귀 울음소리를 시각적 심상인 검정 포대기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두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B] :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융희 2년은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계절은 천 년을 다채해 박년출도 자라고 석류꽃도 피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③ [C]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대구법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자를 잉태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④ [D] :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출생에 대한 감격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왕고뭇덱 제삿날이 배경이고 그 후 화자 자신이 ‘번문욕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출생에 대한 감격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⑤ [E] :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두 의미는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죽음입니다. 아이의 울음 소리에서 죽음이 연상되었기에 할머니는 명이라도 길라고 해 화자의 이름을 돌메라고 지어 준 것입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보 기〉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보기>에서 시인은 샤갈의 그림에서 받은 느낌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작품에서 ‘삼월에 눈’, ‘봄을 바라보고 섰는 사나이’ 등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들을 병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눈은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지붕과 굴뚝’을 덮습니다. 눈이 내리는 마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맞지만,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각적 심상만 나타나고 있어요.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샤갈의 그림에는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이는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작품 내에서 ‘겨울 열매들’은 눈이 오면 ‘올리브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